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올해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6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선 왕릉이 세계적 유산이 되면서 국민적 자긍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 지역에 8기, 경기도 일원에 32기가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데 연속 유산으로서 위용이 돋보인다 하겠다.

조선 왕릉은 조상을 기리는 한국의 효 사상의 상징이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의 표상이다. 풍수적 전통에 기인한 독특한 건축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이로운 조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과 진정성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한편 지금까지 이어

조선 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

져 행해지고 있는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조선 왕릉의 특성은 첫째,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적·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이다. 조선 왕릉은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조형 방식에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 왕릉은 타 유교문화권 왕릉과는 다른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능원 조성과 기록문화의 보고이다.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 왕릉을 통해 당대의 시대정신과 통치자의 리더십·문화의식·예술관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 왕릉과 관련된 여러 기록 문헌들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기술과 사상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조선 왕릉 제례문화는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한국민

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존의 조화를 통해 역사적 교훈과 시대정신의 송고함을 느끼게 한다. 이를 범고장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가치로 재창조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아가는 역사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드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조선 왕릉을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재된 시대정신과 인간 스토리를 발굴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왕릉에 계신 주인공들은 그 시절 최고의 리더였다.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향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형적 측면뿐 아니라 사상·정신·의례 무형유산 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500년 이상을 조선 왕조가 유지되고 재위한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완전히 남아 있는

사라는 세계적으로 조선 왕릉이 유일하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향한 무한한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사의 현장이 조선 왕릉이다.

주인공이 묻혀 있는 능침 공간은 주변 산세와 지형에 따라 단릉, 쌍릉, 함장릉, 삼연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나 대부분은 양 옆과 뒤 쪽의 삼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봉분 둘레에는 봉분을 수호하는 각 두 쌍의 석호, 석양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문인석·무인석 및 정자각 등 아주 절제되고 품격 있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왕릉에 들어서면 흥 살문을 지나 참배하는 모습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나무도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열심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능기신제를 일반에 널리 알려 충효사상의 근본으로 가꾸어 점점 메말라 가는 나라 사랑·효 사상을 일깨워 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교의 정신사적 이상을 현대화·세계화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김 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기존에 좁아져 있던 협착증 부위를 꽉 막음으로써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 생기는 질환이다.

협심증에서는 심한 운동 시에만 혈액 공급이 부족해 흉통이 생기지만, 심근경색증에서는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가만히 쉬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6시간~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공급이 차단된 부위의 심장근육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 이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중풍(뇌경색증)과 같은 현상이 심장에 생겼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동맥경화이다. 이는 우리 몸 혈관의 안쪽 벽에 노폐물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해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종의 펌프로서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근육질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심장근육에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상동맥에 동맥경

화가 생겨서 혈관이 많이 좁아지게 되면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협심증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 혈관이 급작스럽게 막혀서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된다. 이에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통틀어서 관상동맥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도 한다.

협심증에 의한 가슴통증은 주로 운동 시에 발생하고 가슴 좌측 또는 중앙부에서 빠른 통증을 느끼며 턱이나 왼팔을 따라 방사통이 생기기도 한다. 초기에는 운동량이 많아야 가슴통증이 발생하지만 점차 적은 운동에도 가슴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대개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수 분 내에 자연 소실되며 니트로글리세린(혈관 확장제의 일종)을 혀 밑에 넣거나 뿌려주면 빨리 회복된다. 당뇨병 환자나 고령인 경우 신경이 둔해져 초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중증으로 진행된 후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등 조기 심장 검진이 필요하다.

심근경색에 의한 가슴통증은 앉아있거나 자다가도 갑자기 발생하며 30분 이상 지속되고 잠을 수 없이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응급실로 오게 되지만 고령

의 환자 중에는 진통제나 우황청심환 등을 복용하고 참다가 결국 심부전 상태가 되어 호흡기관과 부종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일 잠시라도 심한 가슴통증을 느꼈다면 지체 없이 의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C, 비타민E, 엽산, 항산화제 등의 투약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신선한 야채와 과일, 견과류 위주의 식단은 예방 효과가 입증돼 있다. 오메가 3는 중성지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이상일 경우 심혈관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의사와 상의해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갱년기 증상의 완화나 골다공증의 치료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뇌혈관 질환이나 정맥 혈전증, 유방암 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 2004년 이후 미국 FDA와 심장학회에서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 저염식, 유산소 운동 등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기 고

광제사의 사계(四季)



최 산 호 전 옥곡고등학교 교사

나하나 따스하게 다가왔다. ‘그리움만 쌓이네’ 가 끝 곡으로 연주될 즈음 때마침 휘날리는 은행잎은 마치 떠나는 가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하였다. 흰으로 빛은 아름다운 음악, 무대 뒤로 펼쳐진 광제사의 가파르지 않은 언덕배기에 펼쳐진 수채화 같은 가을풍경을 온전한 휴식으로 다가온 선물 같은 오우 한나절이었다. 관객들이 자리했던 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작은 북 카페가 들어선다 하는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합창이 울려졌다.

#봄-두 번째 이야기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피웠습니다” 라는 멘트로 막이 열린 이번 음악회는 봄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봄이 무르익은 광제사 법당 앞뜰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무지크바운 챔버 오케스트라(김태선 지휘)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플루트 독주, 클라리넷 협주곡, 성악곡 등으로 다채로웠다. 이른 봄 향기 고운 매화를 신호탄으로 릴레이 하던 법당 주변의 은빛 화초들이 불두 화까지 달려와서 법당에 연등 밝히듯 다양한 악기들의 조화로운 화음이 마구걸음을 부드럽게 순하게 풀어주는 선곡이었다. 한결같이만 놀라운 열정으로 광제사를 일구고 지켜가는 주지스님의 사회에 결여되지 않 철 선생님의 전문적이인 식견이 돋보이는 탁월한 해설도 명품이었

다. 음악과 더불어 향기로운 봄밤이 익어가고, 간간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채도가 깊어지며 어둠이 내리기 직전 의 신비하고 깊은 푸른빛으로 잔잔한 설렘을 더해주었다. 광제사 뜰에서는 한결 송고하게 다가오는 무등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는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도 경건한 종교의식처럼 다가왔다. 물론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엔 초승달과 셋별이 걸리는 기적이 더해졌다. 빈 필하모닉의 여름음악회가 열리는 비엔나 쉐부른 궁전 보다 광제사의 소박한 뜰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악회가 끝나고 밝혀진 색색의 연등이 우리들 마음속에 꽃으로 자리하여 무명을 밝혀 주는 것이 아닐지 ... 모두가 돌아간 법당 뜰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며 생각해 보았다.

#겨울-첫번째 이야기
지난 1월30일 저녁, 차가운 겨울밤 하늘엔 흠뻑히 배부른 반달을 내걸고 잔잔한 색색의 지등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광제사 법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빛고를 광주 도심 한가운데, 양동시장의 속되지 않은 번잡함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한결같이 단정하고 빈틈없는 선송 같은 절, 광제사가 자리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선생과 백범 김구선생께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셨던 고택은 11년 전에 사할로 바

뀌어 광주사람들을 다 편안케 하라는 의미의 광제사로 거듭난 곳이다. 이날의 음악회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이어 참사람의 향기가 풀풀 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 모두가 좀 더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하였다.

임재홍 연주자는 지난 2013. 2014년에 파가니니와 유겐 아자이를 표제로 전국 16개 도시 투어 리시타일을 완주하였고, 이날은 벨기에의 작곡가인 이자이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6개의 소나타를 들려주었다. 이곡은 당시 각국의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헌정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곡이기도 하였다. 마치 고독한 모노드라마와 같은 독주회장인 법당을 꽉 채운 관객들은 연주자의 맑고 순수한 표정에서 적막한 산사의 신 새벽에 폭폭 쌓이는 첫눈을 보았고 시간의 흐름수록 그의 놀라운 기량에 한껏 젖어들었다. 티났한 스님의 풀림 릴지에서는 일과 중에도 종이 울리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마음을 쉬어가게 시간을 갖는다 한다. 범종 소리와 함께 시작했던 음악회에서도 동침 했던 모두가 바이올린 한 대로 펼쳐지는 음악의 향연 속에서 고즈넉하게 마음 갖을 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절, 광제사에서 모두가 한솥으로 거두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社 說

여자친구 감금·폭행 그러고도 의사 된다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여자친구 폭행사건에 대해 대학 측이 결국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에 벌어졌다. 조선대의전원의 한 학생(35)은 같은 의전원에 다니는 여자친구(31)의 집에 찾아가 약 4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가했다.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학생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집행유예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미처기린 것이다. 법원 선고 후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야 대학은 부랴부랴 가해 학생의 제적을 결정했다.

또한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수업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최종성 결과과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 문제라

며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호소를 학교 측이 외면하는 바람에 가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으며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가해자가 의전원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뒤늦게 제적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런 폭력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대학 내 성폭행이 아닌 일반 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재판을 거쳐 징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학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신속하게 징계하고, 서로 대면을 막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 ‘도시 통합적 디자인’ 구축 나선다

광주시가 최근 도시 전반의 건축 등 물리적 환경을 통합·조정하는 도시디자인 자문관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의 통합적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약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설된 도시디자인 자문관으로 임명된 인사는 일본 출신의 구니요시 나오유키(67·전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수석디자이너)다. 그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로 명성을 얻은 요코하마시에서 40여 년간 일한 도시디자인 전문가다.

사실 광주는 ‘도시 난개발’이라는 표현 그대로 수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만들어진 도시다. 짜임새 없이 제멋대로 건물들이 세워진다 보니 외국의 문화도시와 같은 매력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물론 광주시는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해 수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아직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디자인 자문관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창의도시 요코하마’를 지휘해 온 구니요시의 영입을 통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끌어 내기로 했더니 딱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화도시의 품격에 맞는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디자인의 방향과 컨셉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지만 구 단위로 진행되는 개별사업들과의 조화 등을 위해서는 1인 중심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코하마가 세계적인 창의도시로 성공한 것은 구니요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을 도시정비국이라는 시스템으로 묶어 일관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로드맵 마련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전문 공무원제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때 광주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가게 되면 낮 뜨거운 모습을 봐야만 했다. 기관장들의 인사말 때문이었다. 문화 행사임에도 지적 자랑하기에 바쁘거나, 혹은 문화 마인드가 없어 엉뚱한 축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화제 개막식에서 우린 왜 광주 경제 동향에 대해 들어야 했을까. 기관장들 줄줄이 소개하느라 참석자들을 지치게 하던 행사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끼리 하는 행사면 그나마 덜 창피할 텐데, ‘국제 행사’ 타이틀이 붙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면 더욱 열

문화제 개막식에 오신 인사들의 면면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정치 관련도 아닌 문화 행사에 예술인들 한 명 없이, 판박이처럼 기관장 일색인 사진을 보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전담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자리는 객석이 아니라, 바로 저 단상 위엣

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스웨덴영 참여할 때면 더욱 열

문화제 개막식에 다녀 온 지인이 “참 신상 갔다!”며 전해 준 이야기가 있다. 광주극장 김기리 회장이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에 이어 축사를 했는데 그녀는 소개받은 회장이라는 호칭 대신 ‘광주극장 할머니’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 준다.

그런데 축사 사전에 조율 과정이 있었다면 단상에 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제가 설 자리가 아닌 듯한데요”라며 예술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이가 있었을까? 음, 괜한 상상을 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문화제 개막식에 오신 인사들의 면면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정치 관련도 아닌 문화 행사에 예술인들 한 명 없이, 판박이처럼 기관장 일색인 사진을 보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전담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자리는 객석이 아니라, 바로 저 단상 위엣

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스웨덴영 참여할 때면 더욱 열

문화제 개막식에 다녀 온 지인이 “참 신상 갔다!”며 전해 준 이야기가 있다. 광주극장 김기리 회장이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에 이어 축사를 했는데 그녀는 소개받은 회장이라는 호칭 대신 ‘광주극장 할머니’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 준다.

그런데 축사 사전에 조율 과정이 있었다면 단상에 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제가 설 자리가 아닌 듯한데요”라며 예술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이가 있었을까? 음, 괜한 상상을 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여문배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사 인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서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